

## 오 록 도 행복 칼럼



김 한 수  
부산일보 기자·대연동 거주

“아빠, 일어나세요!”

오전 7시 30분. 오늘도 지각입니다. 어젯밤 일찍 잠들었던 6살 첫째 아들이 저의 다리를 주무르며 저를 깨웁니다. 뒤이어 형의 목소리를 들은 17개월된 둘째가 쭈뼛쭈뼛 걸어와 저의 배에 입방귀를 붙여놓습니다.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고 주방으로 가 두 아이와 직장인 아내를 위한 아침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젯밤 예약 취사를 해둔 쌀밥에 애들이 즐겨 먹는 생선구이나 계란 프라이가 자주 상에 오릅니다.

허겁지겁 아침밥을 준비하고 먹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을 넘어 첫째의 유치원 등원 시간이 됩니다. 첫 아이를

엄마 손에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제 정신이 차려집니다. ‘휴~오늘 하루도 시작됐구나!’ 라구요.

저는 육아휴직 7개월차 아빠입니다. 육아에는 서툴기 짝이 없지만 ‘아빠’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느껴보고자 육아휴직을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아들과 함께 지내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의 육아휴직은 전국을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초기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에게 위기였지만, 아이들과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활력소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생긴 2월 하순부터 한 달 가량은 꼼짝 없이 집 안에서만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루 한 두 번,

때로는 세 번까지 했던 집 앞 공원 산책을 못하게 되니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하필 육아 휴직 중인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이 난리야’라는 짜증 섞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3월 중순 첫돌을 맞이한 둘째가 두 발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바라보며 ‘코로나19로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육아터균요. 쉽지 않았습다. 식사 때마다 둘째 녀석이 바닥에 흘려버린 물과 밥풀을 정리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달랠 때는 체력은 물론 감정도 지쳐갑니다. 게다가 2월 예정이던 첫째 아이의 유치원 등원도 3, 4월을 넘어 5월까지 연기되면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님들

이 느낀 감정이었겠지요.

그 와중에 힘든 마음을 다독여준 건 ‘아빠 육아’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집 인근 평화공원으로 산책을 갈 때마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길에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선이 익숙해질 무렵에는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격려를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둘째 아들을 쫓아다니느라 땀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힘내라”는 말씀과 함께 사탕 한 줌을 건네셨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쉬고 계시던 백발의 한 할아버지는 “아기 아빠 화이팅!”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이웃들의 응원과 칭찬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춤추게 합니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

‘알쓸신강(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강연)’ 이번 호에는 지난 6월 26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등대빛아카데미 1강 ‘남상일의 우리 소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지친 마음 위로하는 ‘소리’의 힘

### 국악인 남상일 ‘우리소리 이야기’ 초청 강연회

소리란 무엇일까. 쉬듯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망설여진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쓰는 말이다 보니 그럴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역시 사람의 말소리가 아닐까. 사람의 목소리만큼 다양한 소리도 없을 것이다. 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 어머니의 사랑스런 목소리, 이런 소리들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 민족은 흥이 많아 예부터 생활에서 많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보부상들이 불러왔던 장타령, 상가의 상주 대신 곡을 해주는 곡패,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시어머니 원망도 해보고, 남편이 미워 정선아리랑을 불렀던 우리 옛 아낙들, 이러한 노래들이 발달해 민요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불려진다.

추임새란 판소리를 할 때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넣는 감탄사이다. ‘얼썬’, ‘잘한다’, ‘그렇지’, ‘좋고’ 등을 가락의 앞맛은 곳이나 구절 끝에 넣어 줌으로써 흥을 돋우고 다음 구절을 이끌어 낸다. 추임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추임새가 빠진 소리는 맛있게 생생함이 없게 느껴진다.

대화를 나누는데도 추임새를 줘보자. 사촌이 땅을 사면 추임새를 줘라. 눈빛을 반짝이고 맞장구를 쳐가며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는 모습이나 격려 한 마디, 칭찬 한 마디가 추임새가 되어 상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나 자신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에게는 칭찬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나 편안하게 대로 칭찬할 타이밍을 놓치고선 ‘내 마음 이해 할 거야’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편견에 마음 상하지 않으며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웃어 주고 박장대소하며 신나게 들어주는 이웃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맞장구 추임새를 줘야겠다.

사철가(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사처럼 ‘세상 벗님네들, 이 내 한 말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가 일백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 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사심도 못 살 인생’.

그동안 좁은 생각과 욕심도 인해 마음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던 다소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행복을 바라보자. 매일 나의 아침을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아름다운 소리는 집 주변의 작은 숲과 풀밭에 서식하는 새들의 지저귐으로, 이 경쾌하고 청량한 소리들은 동 물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끊이지 않고 주변의 모든 공기와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자연의 합주곡을 연주하면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

어쩌면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참소리보다 헛소리가 많을지도 모른다. 하여, 소리에 붙은 말도 수없이 많다. 무엇이 내는 가에 따라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파도소리, 문풍지소리, 거문고소리가 있고, 진위에 따라 헛소리, 바른 소리, 미친 소리, 등이 있으며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솔깃해지는 말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닐까 싶다. 정경남 명예기자



## 채무자 보호장치 ‘압류금지채권’

### 박보를 변호사의 생활법률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고 있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남아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압류당해 받을 수 없나요?

A.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185만 원 이하의 은행예금(2019. 4. 1. 이후 압류된 경우), 급여의 1/2 또는 185만 원 이하의 급여, 소액인자인 최우선변제 금액(부동산공익의 경우 6,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기초생활수급비 등), 일정 범위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가 된 경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비가 압류되거나 통장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데 압류가 되어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기초생활수급비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 중 기초생활수급비 및 각종 복지급여의 경우 일반 통장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압류가 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지급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 안정적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압류된 통장에 있는 예금은 기초생활수급비 및 통장잔액이 185만 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홍탁터

\* 법률홍탁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20. 6. 26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효메디오양병원	용호동	간호사	1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624-6600
앤아주식회사	김만동	사무보조원 (시간제)	1명	2020. 6. 26. ~ 채용시	시급 9,500원 ~ 10,000원	051-507-8928
성창이엔지㈜	대연동	내선 전기공	1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300,000원	051-624-0114
(주)휴먼디 용호점	용호동	상품진열원(남)	1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400,000원	051-627-6699
금빛교리리	대연동	출서방원, 주방보조원	3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400,000원 ~ 2,500,000원	051-626-7879
선형상사	문현동	경리사무원 (제조)	1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644-6759
제니스파크 요양병원	우암동	시설 요양 보호사	2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44-7733
사랑재가 노인복지센터	대연동	요양보호사 (이동차량 목적)	2명	2020. 6. 26. ~ 채용시	시급 20,000원	051-610-0625
(주)전진로직스	대연동	도로운송 사무원	1명	2020. 6. 26.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647-6197
맥큐브주식회사	용당동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자	1명	2020. 6. 26. ~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051-714-0414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꼭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II

## 문현동의 별난 북카페

지계골역 1번 출구를 나서면 바로 눈앞에 무학프라자 빌딩이 보인다. 그 2층에 북카페가 있다. 이름이 ‘백경’ (사진)이다.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소설(1851) 제목이 백경, 즉 흰고래다. 이



흰고래 이름이 ‘모비딕’이다. 모비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장(에이함)이다.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그는 복수하기 위해 출항을 앞두고 있다. 그의 동료들이 만류하지만 소용없다. 선원들을 다 구한 선장은 난타스케트항을 출발한다. 망망대해를 꽤 오랫동안 해면 끝에 마침내 모비딕을 발견한다. 그는 거대하고 황포탄 흰고래와 장장 3일간에 걸친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 선원들도 모두 수장되고 만다. 오직 선원 이슈멜만 살아남는다. 소설 백경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성질이 몹시 사나운 흰고래와 인간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과 동물 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함께 선과 악을 다루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선원들의 다양한 성격을 통해서 삶의 유형과 삶의 본질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의문이 생긴다. 정말 흰고래가 있을까. 북카페 백경의 주인장 말로는 흰고래가 있었다. 돌연변이였을까. 아마도 고래 껍질이 백화현상으로 희게 변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옅은 회색에 가까웠단다.

그건 그렇고 주인장에게 북카페 이름이 왜 백경이냐고 물었더니 고래를 좋아해서 그 이름을 붙였단다. 고래를 왜 좋아하느냐 했더니 대학 때 주인공의 은사가 토종고래인 귀신고래를 연구했단다. 그때 은사님 심부름을 하면서 고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주인공이 다닌 대학이 마침 우리 남구에 소재한 수산대학(지급의 부경대)이다. 문득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대략 소설책 2,500권, 수필집 1,000권, 시집 1,000권, 동화책 1,500권 정도 된단다. 여기에 음반 6,000장, 영화DVD 1,000장이란다. 이걸 모두 책으로 치면 대략 1만3,000권이다. 개인 소장치곤 꽤 많다. 우스갯소리로 ‘고래 뱃속에 책이 1만3,000권’ 있다. 이곳 북카페 문을 열면 실내화부터 갈아 신는다. 입구에는 고래 조각품이 아기자기하게 진열돼 있다. 주인공에게 흰고래를 본격적으로 물으니 웃기부터 한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귀를 간질인다. 자리에 앉으니 주인장이 원두를 갈아 내린 카푸치노 한 잔을 내어놓는다. 손님들이 톱 없다. 오히려 그게 좋단다. 왜냐고 했더니 진정한 책임기를 하고 싶은 손님만 받는단다. 꽤 별난 주인공이다.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모여 독서 토론하는 곳으로 좋을 성싶다. 그러잖아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활 속의 화학’이라는 전문화 된 주제로 책 읽기를 하는 독서 모임이 있단다.

또 자랑할 게 뭐냐고 하니 수산 분야의 귀한 책이 많단다. 그러잖아도 우리 남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 수산 분야에 필요한 책은 010-554-8443 또는 070-4126-8443으로 문의해도 된다. 책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책은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혼을 살찌운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가르쳐 준다. 북카페가 동네마다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소설가·항토사연구가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